

‘미세먼지’ 문제 사과한 文대통령, 특단대책 주문

“인공강우·고압분사 등 새로운 방안 개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미세먼지에 대한 그간의 고심이 드러난 듯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참모진들에게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 작업에 들어갔음에도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는 데 대한 우려가 갈

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여는 발언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답답함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대선 당시 미세먼지 배출량과 관련된 ‘일기 중 30%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 대통령의 입장에선 좀 처럼 나아지지 않는 대기 환경에 대

한 답답함도 묻어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그간 공식석상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해 왔다.

지난달 18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도 미세먼지 문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모든 방안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매일 미세먼지 농도가 수치로 공개되는데 ‘나쁨’으로 표시되면 가슴이 찡찡 내려앉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10일 올해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는 신년사에서 전기 및 수송차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개선 방안 등에 언급했다 이외에도 대기업의 미세먼지 정화능력이 장착된 수송차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15일 참모진과의 티타임에서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오랜시간 토론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인식이 드러나듯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참모진들에게 질책 섞인 여러 주문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후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 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의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며 “인공강우, 고압분사, 불 청소 공기청정기,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 개발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구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염두에 둔 듯 “중구발 미세먼지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중구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도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에서 열린 정개특위 산하 제1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이 바른미래·민

문 방안이 아나가 한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실현이 가능해야 한다. 민주당은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野) 4당이 강력 반대하거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산하 제1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이 바른미래·민

이낙연,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에 “잘못 확인시 법대로”

“도시재생·근대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예정대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돼 있으므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원 조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거정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시재생사업과 근대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투기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서 결사항전하겠다는 다짐을 함께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정청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손 의원 발언 배경에 대

해 “오후에 제가 목포를 가게 돼 있다. 원래 목포 방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얘기하는 것 보다는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말했다”고 했다.

한편 손 의원은 자신의 친척과 보좌관 조씨 가족 등의 명의로 전남 목포시 ‘문화재 거리’ 일대 집과 건물 다수를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문화재 지정 업무를 하는 문화재청을 감사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정개특위, 야4당 ‘민주당式 연동형 비례제’ 반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김종민 소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을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野) 4당이 강력 반대하거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산하 제1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이 바른미래·민

문 방안이 아나가 한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실현이 가능해야 한다. 민주당은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野) 4당이 강력 반대하거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산하 제1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이 바른미래·민

야3당 ‘정치개혁 방향과 상당한 거리...당리당략만 앞세워’
한국당, 의석수 300석엔 ‘공감’, 개편안 제출시한 못지킬듯

주평화·정의당 등 야 3당의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안이라고 주장했다. 야 3당은 연동성을 약화시키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민주당 안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보기 어려운, 후퇴한, 회색권 짙음에 가까운 연동형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개혁 방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당리당략을 앞세

어제 민주당 당론은 상당히 실현 가능한 것으로 후퇴한 것”이라고 했다.

천 의원은 발언은 지역구 의석수를 203석에서 200석으로 줄일 것을 제안한 민주당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면서도 민주당이 실현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김성식 의원은 “연

동형비례제의 의석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제시가 핵심인데 민주당 안은 연동성을 약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야 3당이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저희는 복잡하지 않은 선관위가 제시했던 온전한 연동형 방식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김재원 의원은 “준연동제든, 복합연동제든, 보정연동제든 이런 방식은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한 비율과는 달리 비례대표 숫자가 결정되게 된다”며 “국민 직접 투표 원칙, 투표에 따른 대의제 원칙을 손상할 수밖에 없다. 3가지 방식 모두 정상적이지 못한 방식이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장제원 의원은 “개인적으로 평가하자면 이것(민주당 안)은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피해 가기 위한 면피용 안”이라며 “현실적으로 200석으로 줄이는 것은 실현가능성 없는 제안을 위한 제안이다. 후보에 줄것이라고 수박피는냐”고 거부감을 드러냈다.

장 의원은 “다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볼 수 있는 안이라면 300석(총 의석수) 제안”이라며 “야 3당이 합의를 해준다면 이것은 합의를 했다고 나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는 특별한 게 없었고 내일 모레 회의 때 민주당 안을 보고하고 야 3당도 내일까지 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한국당은 내일까지 안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홍준표, 오세훈·황교안 동시 겨냥 “비겁·뻔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한국당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총리를 겨냥해 “비겁하기도 하고 뻔뻔스럽기도 하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라며 날을 세웠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들이 이 당을 위해 어떤 헌신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깊이 반성을 한 후에 정치를 시작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오전 시장을 향해 “지방선거 패배를 두고 나를 비난하는 분에게 그 어려운 지방선거 의중에서 그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되물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를 겨냥해서는 “통합진보당 해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업적인데 단지 정부의 소송대리인으로 나섰던 분이 그 걸 자신의 업적으로 포장하면서 대어 투쟁력을 과시하는 것은 참으로 의아하다”라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집안이 망해 갈 때 혼자 살기 위해 가출해 버렸던 사람 뒷방에 앉아 대통령 놀이를 즐겼던 사람이 집안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자 이제가 들어와 안방을 차지하겠다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맞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

광산구